

운전학원 수강료 인상 담합 의혹

광주·전남 50여곳 20~35%...월 70만원대 폭등

수강생 1만여명 "공정위 조사" 촉구

광주·전남지역 자동차 운전학원들이 수강료를 대폭 인상할 방침이어서 수강생들의 불만이 크다. 운전학원 수강생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원이 9일부터 수강료를 월 10만~20만원씩 20~35% 올린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자동차 교육료는 신고제(전남지방경찰청)로 학원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현재 50만~60만원 수준이다. 광주시 동구 M 학원은 월 57만원인 교육료를 9일부터 67만원으로 올리고, 나주시 S학원은 60만원을 70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자동차 운전학원은 ▲광주 15 ▲전남 36곳 등 51곳이며, 수강생은 1만여명이다. 두 달째 운전교육을 받고 있는 신모(28·광주시 동구 서석동)씨는 "학원내 시설이나 여건이 전혀 바뀐 것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10만원 이상 올리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광주 전체가 오르는 것 같은데 담합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A 학원에 다니는 전모(여·22·광주

시 서구 쌍촌동)씨는 "단계적으로 수강료를 천천히 올리거나 학원들의 운영비를 낮출 수 있는 법적 제도 없이 갑작스럽게 인상한다니 무슨 말입니까"며 "부모님에게 돈을 타서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영치가 없어서 아직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원 측은 이에 대해 "지난 97년부터 수강료를 인상하지 않고 운영하다 보니 너무 힘들다"라며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광주는싼 편"이라고 말했다. H 학원 관계자는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교육료 등 행정기관의 조사를 촉구했다." "광주 자동차전문학원협회" 박석준(65) 사무국장은 그러나 "물가 인상

과 타지역의 영향을 받아 학원끼리 연락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회에서 가격을 올리라고 지시한 적은 절대 없다"고 부인했다. 광주 공정거래사무소 김선란(총괄과) 조사는 "학원끼리 담합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저촉돼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에 있는 전남운전면허시험장에 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을 보기 위해 대기 중인 사람들은 현재 1천400여 명이며, 하루 평균 300명 내외가 운전면허를 따고 있다. /최경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 고교 농구 기대주 2명 음주후 치어 사상

흑산도선 35명 부상

기대주 2명 음주후 치어 사상 전남고교농구대회가 흑산도를 거친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등 두 사망과 35명 부상 사고가 잇따랐다. 8일 새벽 0시40분경 여수시 화동로 자동차 매대상사 앞 도로에서 여수 전지화학교고등학교 농구선수 홍모(18·2학년)군 등 2명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차가(20·회사용차)의 '전남 29 나36XX 호' 프린스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홍군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김모(18)군이 중상을 입고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다. 숨진 홍군과 김군은 지난 3월 열린 춘계 전국 중·고 농구대회에서 센터와 포워드로 활약하면서 뛰어난 스피드로 팀을 준우승으로 이끈 주역이

며, 졸업 후 서울지역 대학에 특기생으로 진학할 예정이었다. 또 이날 오전 8시25분경 신안군 흑산면 마리 해안일주도로에서 관광객 34명을 태운 L관광 소속 '전남 72차 60XX호'(운전자 김모·45) 관광버스가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50m 아래 산비탈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씨와 섬 일주 관광에 나선 박모(여·47) 씨 등 관광객 35명이 중경상을 입고 목포지역 병원과 흑산보건의료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뒤이어 오전 9시30분경은 광주시 북구 연제동 삼수도 공사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김모(22)씨가 추진하던 굴삭기(운전자·이모·43)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조선대 휴학생인 김씨는 군 입대를 한 달도 앞두고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다. /목포=이상희기자 lsh@kwangju.co.kr /여수=김성훈기자 kangsw@

니원침 (7098) 김종두



벌써 열세 번째...

광주 '노래방 강도' 또 발생

경찰 지문 맞추기 '퍼즐게임'

지난 1999년 개봉된 영화 '본 컬렉터'(The Bone Collector)는 연쇄살인범죄의 퍼즐 게임(puzzle game)을 열개로 하고 있다. 주연은 맡은 '덴셀 워싱턴'과 '안젤리나 졸리'는 범인이 남긴 조각을 컴퓨터상에서 어디저리 맞춰 나가면서 뒤를 쫓는다. 광주지역 노래방 강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도 '퍼즐 게임'에 들어갔다. 가장 최근인 13번째 강도 현장 등 두 곳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指紋)을 찾아냈으나 '완전한 물건'이 없어 하나하나 짜 맞추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 지문 전문가에게 양쪽 노래방에 나타난 지문을 보내 수사를 의뢰했다. 두 곳의 지문 특징을 하나씩 대조,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용의자를 찾으려는 의도다. 경찰 관계자는 "엄지손톱의 지문을 상하좌우로 4등분 했을 때 각 위치마다 개인별 특징점이 있어 일부만 발견되더라도 용의자를 좁혀 나갈 수 있다"며 "지문에서 고유한 특징 자체가 발견되지 않거나 노래방 손님들의 지문일 경우 '지문 퍼즐 게임'이 한수일 때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함평 '기미 4·8만세 88주년 추모식' 8일 오전 함평군 해보면 장터에서 열린 '기미 4·8만세 88주년 추모식'. 청년회·사회단체·면민 등 500여 명이 추모식 후 해보면사무소~3·1 만세탑까지 1.6km를 시가행진하면서 '그날'의 함성을 재현하고 있다. /함평=남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일가족 3명 숨진채 발견

광주 서구 모 아파트 '억대 빚' 부부 갈등

지난 6일 밤 11시30분경 광주시 서구 S 아파트에 사는 김모(여·37)씨와 두 자녀가 안방에서 숨져있는 것을 남편(38)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에 따르면 아내가 목을 매 자살한 옆에 생후 2개월 된 딸과 아들(10·초등 3년)이 질식사 채, 숨져있었다는 것이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김씨는 A4지 2장에 "먼저 떠나 미안하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빚을 갚고 싶었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김씨는 직업군인인 남편이 대출을 받아 시택에 빌려준 1억6천여만원의 빚 때문에 가정불화를 겪어왔고, 최근 이혼 및 자녀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판, 두 자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명품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636 최대단지! /명품주택·후수공관 조망의 최고 단지 /수원신도시 피오레 /문의 062) 367-9000

광주 PC방에 만원짜리 위폐

지난 7일 오후 8시28분경 광주시 북구 유등 동 PC게임방에서 만원짜리 구권 위조지폐 2장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종형 기자 golee@

취객, 광어회 들고 경찰서 찾아 소란

○한밤 중 광어회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가는 취객이 이를 경찰서장에 전달하려다 저지당하자 전경대원을 폭행.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모(47)씨는 8일 새벽 1시20분경 광어회를 들고 서정상에 가던 중 112 타격대를 만 체고(22) 상경이 저지하자 "내가 누군지 아니냐. 교도소에 다녀온 몸"이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며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는 것.

○이씨는 평소 자신에게 잘 대해준 K경관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이날 회를 사들고 경찰서를 찾았다가 자리에 없자, "경찰서장에 게 대신 전달할 생각"이었다고.

Large advertisement for HANATURE (하나투어) featuring travel packages for Jeju Island, Europe, and Asia. Includes contact numbers and prices for various tours.